

골드 빛 심장

밸런타인 데이를 기념하는 것은 블랑팡의 워치메이커들이 20 여 년 간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다. 르 브라쉬의 블랑팡 매뉴팩처는 덧없이 지나가버리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레이디버드 “밸런타인 데이 2022”는 시간을 사랑으로 결합하는 영원한 감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시계다!

영원의 상징인 레이디버드 “밸런타인 데이 2022”(Ladybird "Valentine's Day 2022")는 고귀한 스톤과 소재의 반짝임을 담고 있다. 극도로 섬세하게 제작한 이 시계는 선택 받은 이의 손목 위에서 그것이 원하는 가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에 손색 없다. 유광 처리한 레드 컬러 숫자와 원형을 이루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은 달콤함, 흠모,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 타임피스에의 주제는 초침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 강렬한 레드 하트를 달고 회전하는 것이다.

지름 34.9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베젤과 러그에 섬세하게 세팅한 흥미로움을 더하는 58개의 다이아몬드와 함께 반짝인다. 다이아몬드의 순수함이 시계 크라운을 장식한 로즈-컷 루비의 광채와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사랑의 컬러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핀 버클을 갖춘 악어가죽 스트랩으로까지 이어진다.

사파이어 케이스백에서는 거의 300년에 달하는 유산과 노하우를 품고 있는 블랑팡 워크숍에서 온전히 개발하고 제작한 1153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발견할 수 있다. 메인플레이트, 브릿지, 그리고 다른 부품들을 오토 옴로제리의 위대한 전통에 따라 정교하게 데커레이션해 이 시계를 진정한 주얼리로 격상시킨다. 4일 파워리저브 가능하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춘 섬세한 1153 무브먼트는 오랜 수명을 약속한다.

99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하는 레이디버드 “밸런타인 데이 2022” 워치는 시간 그 자체만큼이나 고귀하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징표다. 블랑팡이 최초의 셀프와인딩 여성 손목시계 롤스(1930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운드 워치 레이디버드(1956년) 등 여성만을 위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들에게 보낸 사랑에 대한 증거 말이다.